

동계 올림픽 홍보·일자리 창출 중점 2002억 편성

올림픽 1020억·일자리 438억
 대외 홍보예산 449억 등 증액
 18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강원도는 28일 총 2002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일자리 예산 두축으로 짜여졌다. 올림픽 관련 예산은 1020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앞서 정부 추경에 확보된 국비 549억원과 도비 매칭을 통해 증액 편성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홍보예산이다. 이번 추경에서 올림픽 국내외 홍보예산은 449

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대변인실에 배정된예산은 270억원 내외로 138억원은 올림픽운영국이 대외홍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변인실 기준으로 하면 당초예산 224억원에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492억원이 넘는다. 대변인실의 연간 홍보예산이 평균 30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15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이외 △문화올림픽 붐업 추진 244억원 △올림픽 상품관 설치·운영 60억원 △특구주변지역 경관개선 53억원 △정선알파인경기장 제설시스템 증설 44억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개선 38억원 △올림픽접근기지방도보수 11억원 등이다. 평창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지원 예

산은 도비 매칭 없이 국비로만 8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새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분야 사업과 연계, 438억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방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며 관련 예산 120억원이 세워졌다.

또 일자리 창출 사업에 438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일자리 보조금 지원 229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31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1회 추경(총 3820억원)을 편성, 일자리 사업에 1070억원을 선투자했다.

중앙지원사업과 도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수 사업 예산은 350억원이 편성됐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8억원을 비롯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3억원 △강원FC지원 5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3억원 △옥계지구 개발추진 3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억원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22억원 등이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담회에서 "이번 추경안은 올림픽 성공 개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며 "추경 국비 예산 최대 확보는 도 정치권과의 협력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도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지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 사업

항목	예산 (단위: 억원)
올림픽 국내외 홍보	449
문화올림픽 붐업 추진	244
올림픽 상품관 설치 운영	60
특구주변지역 경관개선	53
수도권 이전기업 일자리보조금 지원	229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20
노인일자리 지원	31
산림예찰방재단 지원	3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8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3
강원FC 지원	50
한발대비 용수개발	43
옥계지구 개발 추진	30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22

총합계 : 2002억

강원그린박람회 오늘 개막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올해 5회째를 맞는 '2017 강원그린박람회'가 29일 오전 11시 춘천막국수담갈비 축제장인 옛 캠프페이지내 봄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진다. 강원도민일보와 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90여개 기업들이 참가해 우수제품을 선보이며 예년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박람회장 실내에서는 그린라이프, 녹색산업, 청정에너지, 청정식품, 환경기업, 사회적기업 등 6개 분야, 10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유기농식품, 천연비누,

홈패션, 화장품, LED면조명 등 1000여개의 그린산업제품이 판매되며 제품들 중 최대 90%까지 할인 가능한 상품도 포함돼 있다. 실외부스에서 포드자동차의 하이브리드형 수입차 홍보와 이동식 황토 구들장 체험 등 이색 그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아프리카 난민 물부족 VR체험 등 그린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 강원산림자원홍보관과 그린놀이터 체험존이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내 오후 2시와 저녁 6시 경품추첨 행사도 열린다. 이번 박람회 입장객에게는 에코백 장바구니가 무료로 제공된다. 신관호 ▶ 관련기사 8면

내년 국비 '5조 2700억원' 확보 전망

당초 요구액 보다 700억 ↑
 SOC 예산은 대거 미반영

강원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5조 2700억원 내외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요구액(5조 2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대형 SOC사업은 타시도와 연계, 반영된 예산인데다 도내 신규 SOC나 올림픽사후관리 예산 등은 반영

되지 않아 향후 국회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28일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 반영상황을 집계한 결과 당초 국비요청액 보다 500억~700억원이 늘어난 5조 27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새 정부 일자리정책 등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분야에 195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산업 육성의 경우,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500억원을

비롯해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구축 30억원,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27억원 등이 각각 확보됐다. 지역발전 사업분야는 농산어촌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 1548억원 등 5540억원, 문화·관광·체육 및 폐광지역 개발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133억원 등 830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동해항 3단계 개발 1358억원을 비롯해 타 지역과 연계한 사업인 포항-삼척 철도(1246억원), 원주-

제천 철도(1500억원), 경원선 철도(649억원) 등이 확보, 도내 SOC사업은 총 94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SOC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제2경춘국도 등 도내 신규 SOC사업은 줄움이 미반영됐다.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74억원)을 비롯해 올림픽 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활성화(48억원), 올림픽 아라리 생태축 조성(44억원), 가리양산 산림생태복원사업(52억원) 등 올림픽사후관리예산도 정부예산에서 배제됐다. 박지은

건협, 제2대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 위원 19명 위촉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8일 제2대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 위원 19인을 위촉했다.

회원사 위원 15인은 장경래 광명종합건설(주) 대표, 구제운 (주)뉴동아건설 대표, 이승현 (주)동서개발 대표, 조중호 세대개발(주) 대표, 이정오 정상기업(주) 대표, 최문규 인덕건설(주) 대표, 박흥동 (주)정우동원종합건설 대표, 김종구 신동아종합건설(주) 대표, 박원철 중미건설(합) 대표, 김태철 다우종합건설(주) 대표, 성우종 (주)도원이엔씨 대표, 전욱(주)대한 대표, 김화진 상원건설(주) 대표, 김정주 대림토건(주)

대표, 고성기 (주)아람 대표(이상 지역순)이다.

협회·유관기관 위원 4인은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 박헌준 건설공제조합 기획상무,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옥희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사무처장이다.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는 협회장의 자문기구로서, 협회의 사회공헌사업 관련 장학사업, 건설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2대 위원 임기는 2020년 2월29일까지이다.